

#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특강

- 탄소중립과 청년의 역할 -

## 1 강연을 시작하면서

-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은 보내면서 성장했던 곳임.
  - 물론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, 저의 고향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되어 큰 영광이고, 저도 대학생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라 감회가 새로움.
- 특히 이곳 '반기문평화기념관'은, 평화·번영·인권으로 대표되는 유엔의 정신을 배우고, 제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10년 간 활동하면서 이룩했던 업적을 소개하면서,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육의 산실인 동시에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집단 지성 논의 장소로 되어가고 있어서 매우 기쁘기도 함.
  - 2015년 12월, 유엔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냈던 제가, 오늘날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정신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대학생 여러분과 여기 '반기문평화기념관'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음.
- 역사에서는 어떤 사건이 그 당시에는 사소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의미있는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, 저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기를 바램.

## 2 유엔사무총장 시절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력

- 저는 유엔사무총장 재임시절 평화와 인권,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, 기후변화, 양성평등(Gender Equality), 여성과 청년권익신장(Women and Youth Empowerment)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수행했음.

- 특히, 저는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두가지 의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했는데, 지금도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.
-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재임기간 중 북극에 4번, 남극에 1번 등 총 5차례 극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음.
  - 당시, 파리기후변화협약을 ‘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’, ‘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’, ‘화석연료의 종말’ 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음.
- 그러나 오늘날,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과학적 근거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기후환경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음.

### 3 기후위기

- 현재의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래, 오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임.
  -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 왔지만, 이 모든 번영은 화석연료를 무제한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음.
  - 그 결과 심각한 환경 파괴, 지구온난화, 기후변화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음.
- 현재 전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환경 파괴의 결과임.
  - 환경 파괴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, 야생동물들은 인간들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, 그 결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음.
  - 2003년 사스에서 이번 코로나19까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거의 모두 인간과 동물의 ‘인수공통감염병’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.
- 기후변화는 또한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음.
  - 지난해에는 1월 평균기온이 영하 45.9도로 세계에서 가장 춥다는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여름에 영상 46도까지 올라가 사람을 놀라게 하더니,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음.
  - 미국 사막 데스밸리에 큰 홍수가 났는데, 천 년에 한 번 있는 확률이라고 함.

- 반면 유럽은 폭염과 가뭄이 들어, 에어컨 없이 살던 영국은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겼고, 스페인에서는 저수지가 말라 스페인판 스톤헨지(과달페랄의 고인돌)가 드러났음.
  - 양쯔강도 바닥이 말라 600년 전 불상이 드러났고, 발전을 하지 못해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, 파키스탄은 최악의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서 파키스탄 한해 예산 55조원의 80%에 달하는 41조원의 '기후피해'를 당했음.
  - 세계 경제 10大 대국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손쓸 겨를도 없이 침수 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임.
  -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고 이제 뉴노멀이 되고 있으며, 더 잦은 빈도로 더 센 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임.
- 이처럼 기후변화는 모든 방면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.
    - 더욱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예전의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임.
    - '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'는 2018년에 1.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로 예측한 바 있음.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제54차 총회에서는 그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음. 파국이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임.
    - 또한 IPCC의 올해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1.09도 상승해서 기후과국점(Tipping Point)으로 설정하고 있는 섭씨 1.5도에 불과 0.4도 밖에 남지 않았음.
  - 세계 에너지 수요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전년 대비 4.6% 증가했음.
    -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게 된 것임.
  -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파리협정에서 권유한 1.5도 목표를 성취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.

## 4 탄소중립

- 따라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 그 자체를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.
  - 그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‘기후행동’이며,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.
  - 다행히,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, EU, 한국,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, 중국도 2060년 달성을 약속했음.
- 지난해 11월 13일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종료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(COP26)는 이러한 약속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.
  - 각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인지,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협력을 통해 지구적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회의였음.
- 최종 결과는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것이라 해야겠음.(절반의 성공)
  - 파리기후협약 90%의 국가들이 ‘2050 탄소중립’을 자발적으로 선언했고, 국가별 감축목표(NDC)를 새로 제출한 국가들의 숫자도 154개국으로 증가했음.
  -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문구(‘석탄 발전의 축소’)가 포함되었고, 전통적인 기후협상 의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메탄서약, 산림훼손 방지 등 다수의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었음.
- 일견 긍정적인 전개임이 틀림없지만, 협상 막바지까지 논쟁이 되었던 석탄 발전 관련 내용은 ‘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(phase-down)을 추구한다’는 문구로 최종 결정됐는데, 석탄의 단계적 퇴출(phase out)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음.
  - 석탄발전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의 타임라인이나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불만임.
- 1.5도 목표와 관련해서도 실망스러웠음.

-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5% 감축, 2050년까지 ‘넷 제로’가 필요함. 하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 목표(NDC)를 전부 이행한다 해도 2030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오히려 13.7%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, 이에 따라 각 당사국에 2022년까지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음.
  - 심지어 세계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(28%)과 4위 국가인 러시아(5%)의 정상은 회의에 불참했음. 3위 국가인 인도(7%)는 글래스고 회의 전까지 탄소저감 목표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‘부자국가 책임론’만 외쳤다가, 글래스고에 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마지못해 2070 탄소중립을 약속했음.
  -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, 탄소중립이 당장 생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오세아니아의 피지, 대서양의 버뮤다 등 개발도상국 섬나라 정상들은 일제히 ‘실망’이라는 말로 이 회의의 결과를 요약했음.
-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지구온난화를 1.5도로 제한하는 데 있어 향후 몇 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임.
    - 이 보고서가 평가한 여러 시나리오들에서, 1.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은 2025년 전에 정점을 찍은 후 2030년까지 43% 감축 시켜야 함.

## 5 탄소중립에서의 정부의 역할

- 일단 우리는 우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.
  -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 2050 선포에 이어 2021년 5월 29일에 탄소중립위가 출범하면서, 탄소중립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본격 궤도에 올랐음. 하지만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.
  - 현재 인류의 경제와 생활 전반이 탄소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,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함.
-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향후 30년 동안 매년 7%씩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야 함.
  - 2020년에 마침 세계 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% 줄었는데,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음.

-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위축을 생각해 보면,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임.
- 이러한 미증유의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험난한 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함.
  - 올 5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만, 앞으로 새 대통령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탄소중립 계획을 늦추는 일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해 나가야 할 것임.
- 저는 또한 오래전부터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.
  -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되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,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.
  - EU는 지난 7월,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인 ‘그린 택소노미(green taxonomy)’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했고,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될 것임.
  - 우리 정부도 이러한 EU 사례와 글로벌 추세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,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함.

## 6 탄소중립에서 청년의 역할

- 탄소중립의 실현에서 시민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.
  -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이 압력을 가해야 함. 특히 저는 청년 세대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이라고 생각함.
  - 탄소중립은 문명적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문명이 바뀔 수 없음.
-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함.
  -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시스템의 외양만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변화도 아님.
  - 시민들이 세계시민정신,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할 때만 세계는 바뀔 수 있음.

- 글래스고 당사국총회의 슬로건은 “사람들이 글래스고를 만든다”였음.
  - 바꾸어 말해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이었으나, 각국 정상들은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고 말았음.
-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.
  - 지금의 각국 정상들은 못했지만 차세대 정상들은 할 수 있을 것이며, 차세대 정상들은 바로 지금의 청년들 중에서 나올 것이 틀림없을 것임.
- 청년이 문제해결의 주역이 되어야 함.
  - 2050년이면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임. 여러분이 중심인 세계에서 못난 기성세대가 버린 쓰레기나 치우고 있어야 하겠는가? 30년 후의 미래를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함.
  - 청년 대학생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, 해답의 주체가 되어야 함. 그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행동력은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임.
- 우리의 기업들도 다수가 ESG경영을 채택하며 탄소중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  -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계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어려움이 더 큼.
  - 그래서 글래스고 유엔 기후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 감축목표를 40%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높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, 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소중립의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려 할 수도 있음.
- 심지어 미국 같은 곳에서는 ESG경영에 반발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.
  - 일단의 사람들이 기업 ESG 경영 채택을 이른바 ‘워크 자본주의’(Woke Capitalism)라 명명하고 ‘안티 워크’ 운동을 벌이고 있음.
  - 기업이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지 직접적인 사회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.
- 기후위기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착오임.

- 이미 전 세계가 탄소중립 2050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, 그를 위해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있음.
- 지금은 ESG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도리이지 오히려 그것을 저지하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, 반기후 행동임.
- 청년 대학생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착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탄소중립을 전진시켜야 함.

## 7 맺음말

- 탄소중립 2050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임.
  - 그것은 아주 험난한 길이 될 것임.
  -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함.
- 탄소중립은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, 과거의 그 어떤 정치혁명이나 사회혁명보다 급진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.
  - 그만큼 새로운 인식과 세계관을 갖춘 청년의 역할이 크기에, 여러분께서 이 중대한 전 인류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.
- 끝으로 기후환경리더로서 언제든 잊지말아야 할 두 개의 경구를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고자 함.
  - 저는 ‘신기후체제’ 구축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했음. “There is no Plan B, Because there is no Planet B.”
  - 제가 지난 2018년 4월,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. “신은 누구나 언제든지 용서하고,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,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.”